

일반논문

먹거리 불안과 관련 소비행위의 사회계층적 분화*

김선업[†]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 이해진^{***}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이 연구는 서베이 자료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과 관련 소비행위의 사회적 분화 양상을 사회 계층과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먹거리 불안, 먹거리 관심, 그리고 구매 행위의 세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각각 사회적 분화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 간 연관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먹거리 불안은 교육수준에 따라 그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하층보다 중층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불안 수준은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보다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불안 유형에 따른 차별적 반응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먹거리 불안이 위험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라기보다는 적극적 대응을 유발하는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먹거리 관심과 성찰적 소비의 두 가지 먹거리 관련 행위에서 사회 계층과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분화가 나타났다. 먹거리 관심은 소득과 교육수준 모두에서 상층과 하층 사이의 분화 양상이 더욱 분명히 나타났으며, 소득과 교육이 결합되었을 때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주부의 먹거리 관심이 높았으며, 56세 이상 고령 인구 집단 내부에서 소득에 따른 격차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찰적 소비는 먹거리 관심에 비해서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대학 이상 집단과 여성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59).

** 제1저자

*** 교신저자

주부에서 성찰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안이 먹거리 관련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먹거리 불안은 먹거리 관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성찰적 소비에는 먹거리 관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불안, 관심, 구매 행위를 동시에 고려한 먹거리 소비유형 분석을 통해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하층에서 많이 관찰되는 불안 무관심형은 먹거리 관련 행위가 문화적 영역에서 생활양식의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유형이다.

이상에서 발견된 불안과 먹거리 행동의 사회적 분화 양상은 먹거리 불평등을 초래하는 감정과 행위의 토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이 요구된다.

주제어: 먹거리 불안, 먹거리 위험, 사회 계층, 먹거리 관심, 먹거리 소비행위

I.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낳고 있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거시적 불평등이 일상 영역에 파급되어 사회 집단 간 격차를 드러내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적·의식적 차원의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먹거리 불평등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일견 먹거리 불평등은 “먹는 것” 자체의 차이와 격차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들은 필요한 영양 결핍이나 불균형으로 접근하면서 이를 적절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공적 전달 체계나 정책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먹거리 불평등은 먹거리 보장의 공급 차원이 아니라 먹거리 소비의 차원이다. 먹거리 소비가 먹거리 공급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먹거리 소비란 먹거리에 대한 가치와 태도 등 일련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식자재를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먹는 과정을 포괄한다. 일련의 먹거리 소비 과정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기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먹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을 인식하고, 특정한 반응이 유발되거나 행위가 선택되며 타인이나 제도와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 과정은 개인적 선호이자 선택임과 동시에 문화적이고 집단적인 패턴을 반영한다. 후자의 맥락에서 먹거리 소비는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지위나 계급적 위치를 확인하고 유지하는 결과를 낳으며 종종 생활양식의 격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우리가 먹거리 관련 행위를 사회계층적 분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먹거리 불평등이 더 포괄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규정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전되거나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먹거리를 둘러싼 위험과 불안은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적 불안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한다. 먹거리 전달 체계의 글로벌화로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제는 점차 취약해지고 있으며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같은 변종 식품이 천연 식품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먹거리 소비는 일정한 수준의 위험과 불안을 전제하고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기에 먹거리 불안에 대한 인식은 불안을 회피하는 소극적 반응이거나 아니면 대안 먹거리를 추구하는 적극적 행위로 퍼져나가는 시작점이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집단마다의 대응양식은 위험사회에서 소비양식의 사회적 분화를 이해하는 대표적 근거가 된다.

이 연구의 기본 질문은 불안에서 유발된 먹거리 소비 및 관련 행동들이 사회 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분화되는가이다. 성과 연령을 포함하여 소득과 교육수준의 사회 계층에 따른 분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먹거리 불안의 사회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분화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다음, 먹거리 불안에서

출발하여 먹거리 관심, 그리고 구매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요인들을 분화의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동시에 불안의 감정으로부터 관련 행위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먹거리 감정 및 행위 양식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분화에도 주목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 삼는 먹거리 행위는 무엇을 먹는가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행위로서 일종의 절차적 행위이다. 절차로서의 행위는 실제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먹기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는 예비 행위로서의 의의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편으로 먹거리 위협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¹⁾ 현실적으로는 먹거리 양극화에 대한 또 하나의 진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II. 이론적 논의

1. 먹거리 소비에 관한 접근들

사회학자들은 먹거리 소비자의 신념과 행동을 보다 넓은 문화, 이데올로기,

1) 최근 국내 사회과학계에서 먹거리 위협에 관한 논의는 주로 생산과 유통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식량 체계의 글로벌화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위협이 증대되는 객관적 배경을 주로 지적해 왔다(윤병선, 2008; 김철규, 2008). 위협에 대한 일반인 인식 연구가 있지만(정진성 외, 2010; 차용진, 2006) 먹거리 위협은 여러 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어, 먹거리 위험 전반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 연구는 적어도 사회학 영역에서는 드물다. 특정 먹거리 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 행동 연구는 광우병 사태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있으며(김철규·김선업·이철, 2008; 박희제, 2009; 박형신, 2010), 영양학적 시각에서 특정 위해성 식품에 대한 인식, 잠재적 위해 식품에 대한 구입의도, 정보추구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김효정·김미라, 2002; 김규동·이정운, 2010;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2005).

구조의 틀에 위치시킴으로써 먹거리 소비를 영양학적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먹거리 소비는 개인의 건강을 위한 비용-편익의 합리적 선택이나 단순히 영양분만 소비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고, 기호와 이미지와 연관된 미각 경험과 취향, 의미와 상징의 소비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먹거리는 문화적 사회적 분화를 표현하며, 특정 집단의 음식 선택이 그러한 분화에 내재하는 불평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어스워스·케일, 2010: 89-95).

먹거리 소비 양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접근법들은 크게 문화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 감정사회학적 접근들로 분류될 정도로 다기하다. 문화적 접근은 전통과 일상의 소비문화와 그 안에 내재된 관습 및 가치규범, 이미지, 미디어, 담론, 지식,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취향 등이 먹거리 소비양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경제적 불평등 요인이 먹거리 소비양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실들에 주목한다. 계층과 계급적 차이에 주목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먹거리 소비양식의 차별적 효과로 나타난 비만과 당뇨, 기아 등의 문제들이 정치경제적 계급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부르디외(Bourdieu, 1990)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차이를 갖는 계급분파들의 아비투스(a)가 소비양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때나, 구별짓기 전략과 같이 상층계급이 하층계급에 대한 계급위치의 우위를 상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부르디외, 1995)도 이러한 계급적 접근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감정사회학적 접근은 먹거리 소비자들의 감정과 시민적 감수성에 주목하는 경우이다. 건강과 먹거리 위협에 대한 불안과 걱정의 감정들을 비롯하여, 때로는 분노하고 저항하는 집합적 감수성으로부터 먹거리 관련 행동이 비롯된다고 본다.

위의 시각에 부가하여 최근 사회학적 소비연구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실천이론적 접근”(Ropke, 2009) 먹거리 소비양식의 사회적 분화에 접근하는 유망한 이론적 자원의 하나이다. 사회학적 이론의 오랜 딜레마인 구조와 행위,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모순 극복을 겨냥하고 있는 실천이론적 접근은 문화적, 경제적, 감성적 접근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먹거리 소비 양식의 분화와 수렴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성과 역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론 내부의 다기한 입장을 지닌 사회적 실천론이 소비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정연한 틀을 제공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론의 몇몇 요체는 경험적 탐구에 유용성이 크다. 사회적 실천이론의 맥락에서 소비를 분석할 때는 개인적 선택보다 일상생활에서 적합한 행동 양식(modes of appropriate conduct)의 집합적 발전 양상에 주목하며 분석 초점을 개인의 선호로부터 집합적 문화의 제도화된 관습으로, 개별적 표출에서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으로, 부드럽게 강요된 선택으로부터 규율된 참여(disCIPLINED participation)로 옮겨간다(Warde, 2005). 실천이론에서 소비행위는 일상 행위의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통합된 일종의 패턴이지만, 다차원성을 지닌다고 인정한다. 감정 상태, 동기부여, 지식, 사물의 활용과 활동 등 상호연관된 요소들로 구성된 일상화된 행위유형은 감정에서 절차적 행위를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는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다(Reckwitz, 2002: 249). 따라서 소비 행위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 기제로 환원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의 대부분 영역에 걸쳐있는 부분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시에 일련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먹거리 소비 양식은 감정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 행위에 이르는 상호연관된 과정들을 포함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통합되어 있지 않고 매우 혼합적(syncretic)이다(Warde, 2005). 예컨대, 구입 행위와 실용성 사이에 불일치가 있으며 감정과 행위 사이에 적지 않은 불일치와

간극이 존재하는 식이다. 혼합성이 매번 역동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부적 불일치와 그것의 유의미한 효과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물론 행위에 관한 많은 이론과 논의는 태도나 가치 혹은 인접 행동과의 불일치성을 줄곧 지적해 왔지만, 실천론은 이들 각각의 행위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불일치의 총합적 효과를 아우르는 확장된 시야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행위 양식은 먹거리 불안에서 시작하여 최종 먹기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먹거리에 관한 관심과 먹거리 구매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먹거리 불안과 먹기 이전까지의 먹거리 관련 소비 행위에 관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불안과 먹거리 관련 행위 영역들의 관련성 여부를 타진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들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 양상에도 유의하고자 한다. 불안과 행위 영역 간 불일치하는 분포를 포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형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불안과 먹거리 행위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는 먹거리 소비 양식의 유형화를 통해서 감성과 행위, 인식관심과 행위, 그리고 행위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2. 불안 사회에서의 먹거리 소비의 분화

1)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분화에 관한 논의

먹거리 소비의 사회적 분화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사회적 분화는 사회 계층적 요인에 따른 분화와 불평등 양상이다. 부르디외의 논의에 따르면 상층 계급의 음식 취향은 가볍고, 양이 적으며, 섬세하고, 세련된 음식을 선호하는데, 이는 무겁고, 양이 많으며, 기름지고, 거친 음식을 선호하는 노동계급의 민중적 취향과 구별된다. 음식 소비에 대한 경제적 제약이 느슨해

자는 중상층 계층은 하층 계층에 비해서 탁월함과 날씬한 몸매를 위해 조아함과 비만을 경계하는 검열을 강화한다. 예컨대, 경제자본보다는 문화자본이 더 풍부한 중간계급의 교수들은 금욕적 소비와 아국적 취향, 요리의 민중주의를 지향하며 독창성을 추구한다(부르디외, 1995: 301-307).

전통적 문화자본론이 취향과 먹기의 계급 간 격차를 부각시켰다면, 최근 들어 먹거리 인식, 지식, 관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 간 분화 양상에 주목하는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점증하는 먹거리 위험은 먹거리 소비에서 안전을 비롯하여 “잘”에 대한 전반적 고려를 낳았으며 이에 대한 사회집단마다의 차별적 대응에 주목한다. 참여관찰과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가족단위에서의 먹거리 관련 소비양식을 세밀하게 관찰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양육 방식이 계급마다 차별화된 양식으로 존재한다(Delormier · Frohlich · Louise, 2009). 또한, 음식 소비와 먹기의 사회적 조직화에 관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두 집단의 유사한 장보기 형태에도 불구하고 중간계급 주부가 노동계급 주부보다 건강식품을 더 많이 구입했으며,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먹거리 선택 시 가격보다 질을 중시한다(Calnan · Cant, 1990; Wills · Meiburn · Roberts · Julia, 2011). 이 같은 발견들은 계급 격차가 먹거리 위험과 안전에 관한 인식과 관심을 포함하여 여러 소비 관련 행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먹거리 관련 행동의 차이들이 건강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임을 함축한다.

그런가 하면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문화 간 경계가 약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개인주의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소비문화를 집단이나 계급 분화의 맥락에서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주로 음악이나 미술 등의 문화 장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논의들은 문화 대신

융합을 강조한다.²⁾ 동시에 먹거리 소비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서 분화양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다른 소비영역과 달리 먹거리 소비는 건강과 생존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감정과 실천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박형신, 2010). 특히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위험 파동을 경험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중국산 수입 먹거리의 식품오염 문제나 가짜 식품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희석시키는 일종의 먹거리 위험과 불안을 겪는 운명(감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거나 좀 더 진전된 먹거리 시민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김철규·김선업·이해진, 2008; 이해진, 2008). 영양학적 웰빙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걱정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공중의 기대와 감수성은 높아지는 반면에, 먹거리 위험에는 덜 관대해지면서 위험에 민감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비어즈워드 외, 2010: 297). 이러한 연유로 한국사회의 먹거리 소비양식에서 나타나는 인지, 지식, 감정 등의 먹거리 실천이 계층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화되기보다는 일종의 감정적인 먹거리 시민으로 수렴되는 동질화에 이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사회 계층에 따른 경제적 먹거리 불안 및 관련 소비행동의 분화 양상을 관찰함에 있어서 특히 교육수준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은 먹거리 관련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간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특유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먹거리

2) 대체로 이들 논의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고급문화와의 구분이 약화되는 양상을 지적한다.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대중문화의 질이 고양되었으며 고급문화 자체도 타 문화영역 간 융합을 시도하는 '탈귀족화'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DiMaggio and Mukhtar, 2004).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자본이 고급문화는 물론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포용성을 지니는 양상임을 실증한 바 있다(한준·한신갑·신동엽·구지숙, 2007).

불안 및 관련 행위와 관련하여 교육수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먹거리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지식수준이다. 먹거리 유해성을 판별하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관련 정보에 관한 관심과 이해 능력과 관련된다. 특히 GMO를 비롯한 기술 관련 위해요인에 관한 인지능력은 교육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skell et al., 2004; 황윤제 · 연구영 · 한재환, 2009).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수준에 따라서 불안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증폭될 수 있다. 전자가 먹거리 불안이 확산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불안 감정의 파급을 합리적 판단 능력이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후자는 일상의 소통 세계에서 객관적 위험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아무튼 불안을 비롯하여 먹거리 위험에 대한 인식에서 지식은 위험의 객관성 문제와는 별도로 위험 상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구성적 역할을 수행한다(박희제, 2009).

교육수준의 또 다른 의미는 교육이 계층적 지위 집단을 형성하는 대표적 요인이라는 사실에서 설명될 수 있다. 문화자본론의 맥락에서 교육은 문화자본의 형성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교육적 성취는 특정 문화적 습속을 체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수준을 공유하는 집단들은 먹거리 불안 수준을 공유하고 나아가 먹거리 소비양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계층적 요인과 함께 성과 연령은 불안을 비롯한 먹거리 관련 행동의 분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인구학적 요인이다. 성(gender)에 따른 먹거리 인식 및 관련 행동양식은 먹거리 위험 인식의 고전적 연구가 진행된 이래로 주요 관심이 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여성의 높은 불안 수준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해석되었다(Debra · Freudenburg, 1996). 여성이 감성적으로 위험에 더 민감하다거나, 위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위험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해석들은 여성의 행동 양식을 비합리적이거나 감성적으로 간주하

며 불안을 부정적 징후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아이를 키우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의 가족 내 양육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들은 여성의 높은 불안 수준을 먹거리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반응으로 해석한다 (Debra · Freudenburg, 1996). 특히 후자의 맥락에서 가족 내 역할에 주목하여 먹거리 인식과 행동 양식의 성별 격차는 일반적인 성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음식 준비를 하거나 아이 양육 종사여부와 같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연령 집단에 따른 먹거리 불안과 관련 행동 양식의 분화는 주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Dosman · Adamowicz · Hrudey, 2001; Wilcocky · Pun · Khanonax · Aung, 2004). 같은 생애 주기를 경험하는 코호트 집단은 먹거리와 관련한 태도나 행위 양식에서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협에 무감각하거나 낙관적 경향이 증대된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먹거리 관련 인식과 행동이 건강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 새로운 관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계층적 지위를 비롯한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 효과가 고령기에도 지속될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상의 먹거리 불안과 관련 행위의 사회적 분화에 관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경제적 계층, 즉 소득 수준의 사회 계층 요인을 비롯하여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먹거리 불안과 관련 소비 행위들의 분화 양상을 규명하기로 한다. 나이가 사회 계층에 따른 분화양상은 인구학적 요인과 독특한 결합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 역할 요인과 연령 집단 특성에 주목하기로 한다.

2) 먹거리 불안과 관련 소비 행위

인류 사회에서 먹거리에 관한 규정은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의 구별에서 출발했다. 오늘날에도 먹거리를 둘러싼 위험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위시한 특유의 감정을 수반한다(Wilkinson, 2001). 사회과학 영역에서 위험 불안과 감정에 대한 논의들은 소위 심리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Slovic, 2000). 위험 인식 연구는 먹거리 불안에 관한 한 오랜 전통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불안과 위험 인식은 단순히 심리적이고 개인적 속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다분하다(Renn, 2008; Knight·Warland, 2005). 잭슨과 에버츠(Jackson·Everts, 2010)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을 프레이밍하고, 그러한 불안에 영향을 받는 행동과 실천들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상이한 공동체나 집단들이 채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장기적인 소비 양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불안”(Jackson·Everts, 2010; Jackson, 2010)은 특히 사회적 불안이 야기하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흐름이 재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련의 소비 패턴의 유지 혹은 변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먹거리에 관한 관심은 불안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며 동시에 먹거리 소비 행위의 대표적인 선행적 성향의 하나이다. 기실 먹거리 불안과 먹거리 관심의 인과성은 양 방향성을 지닌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서 먹거리 불안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관심이 유발된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후자의 인과성에 주목한다. 즉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일련의 먹거리 관련 소비 행동이 유발되며 소비 행위의 시초 영역을 먹거리 관심 관련 행동으로 규정한다. 먹거리 관심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먹거리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응이나 대응 양식이지만 보다 질 높고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적극적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행위로서 먹거리 관심은 구체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추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타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먹거리 정보를 얻는 활동이 가장 기본적 행위라면 먹거리 관심은 영양이나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먹거리 생산과 유통, 그리고 성분과 같은 먹거리 속성에 관한 이면의 정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이는 먹거리를 누가 어떻게 생산하는가, 유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정보 추구 행위를 말한다.

먹거리 소비 관련 행위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행위는 먹거리 구매 행위이다. 사실 먹거리 관련 구매는 여러 속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행위이다. 단순히 영양이나 가격과 같은 실용적 욕구에 머물지 않으며 다양한 동기와 선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둔 먹거리 구매 행위는 먹거리 불안과 관련하여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행위로서의 구매이다. 여기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관습적 소비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을 수반하거나 더 나아가 대안적 소비를 추구하는 행위가 있다(Halkier, 2001). 전자가 식품 구매 시 건강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들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채식, 유기농산물, 로컬 푸드와 같이 관습적 소비와 대비되는 대안 먹거리 양식을 의미한다. 우리는 전자의 성찰적 구매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대안 먹거리 소비는 일반 소비자에게서 관찰하기 어려우며, 환경 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 등 특정 가치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볼 때,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분화 양상을 포착해내기 어렵다. 또한 성찰적 소비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적 소비로 나아가는 중개적 행위라는 점에서 분석적 의의가 더욱 크다.

먹거리 불안을 전제로 먹거리 관심 그리고 성찰적 소비에 이르는 일련의 소비 과정은 논리적 연결성에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동일한 위험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 감정은 분산될 수 있다. 먹거리 관심 또한 위험보다는 긍정적 느낌에 기초하여 증진될 수 있으며, 높은 먹거리 관심에도 성찰적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장애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일련의 소비 과정의 영역 간 통합과 이탈의 양상을 관찰하며 동시에 사회 계층을 위시한 사회적 요인을 통해서 통합과 이탈의 경로를 탐구하는데 있다.

3) 위험 유형과 불안

위험으로부터 야기된 불안이 위험 혹은 위해요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때, 위해요인의 속성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위험연구자들은 발생확률과 발생 시 치명성, 통제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 혹은 위해요인을 구분해 왔다(Renn, 1992). 위험 구분에는 일차적으로 분석 목적이 고려되는데, 불안을 위시한 위험에 대한 반응을 염두에 둘 때 가장 즐겨 적용하는 구분은 위해(hazard)의 원인에 관한 것으로 “생활습관(life style)”과 “기술(technology)”과 같이 포괄적으로 구분한다(Frewer · Shepherd · Sparks, 1994).

두 가지 유형의 위험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위험 원인에 대한 통제 여부나 관련 지식의 차이로부터 연유한다. 대체로 기술로부터 연유한 위험에 비해 생활습관에 원인이 있는 위험을 보다 덜 심각하고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Miles et al., 2004). 생활습관에서 연유한 위험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해 기술로부터 발생한 위험은 통제가 어렵다고 인식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수준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식이 불안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증폭시킬 수도 있다(Miles · Frewer, 2001).
나이가 위해 원인에 대한 반응에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나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Verbeke · Lynn ·
Scholderer · Hubert · Brabander,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먹거리
위해요인의 특성에 주목하여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위해요인과 기술 위해요인
을 근거로 먹거리 불안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

3. 경험적 분석 주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연구 주제를 경험적 분석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먹거리 불안의 특성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먼저 먹거리 위해요인의
특성에 따라 먹거리 불안 유형을 구분하고 먹거리 불안의 감정이 소득과
교육수준의 사회 계층 집단과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집단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비교한다. 나아가 사회 계층 요인들과 인구학적 요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둘째, 먹거리 관련 행위의 사회적 분화 양상을 분석한다. 먹거리 관심과
성찰적 소비 행위를 대상으로 소득과 교육수준의 계층 요인 그리고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먹거리 불안, 먹거리 관심 및 성찰적 소비행위의
분화 양상을 분석한다.

셋째, 먹거리 불안, 먹거리 관심 및 성찰적 소비 행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먹거리 관심, 그리고 성찰적 소비 행위에 이르는 인과적
관련성을 분석한다. 먹거리 관심에 불안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찰적 소비
행위에 먹거리 관심과 먹거리 불안이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한다. 동시에

사회 계층 및 인구학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포함하여 각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먹거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한다.

넷째, 먹거리 불안과 먹거리 관련 행위 양식에 관한 소비자 유형을 분석한다. 먹거리 불안, 먹거리 관심, 성찰적 소비의 3개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유형화하고, 나아가 사회 계층과 인구학적 집단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다.

III. 측정과 자료

1. 주요 변수의 측정

1) 먹거리 불안

먹거리 불안은 먹거리 관련 위해요인별 불안 수준으로 측정한다. 먹거리 위해요인은 1990년 중반 이후 주로 쓰고 있는 PERI(Percieved Food Risk Index)를 기초로 관련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위해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위해 영역은 바이오테크놀로지, 가축 및 농장 관련, 라이프스타일, 미생물의 네 가지 영역이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13개 위해요인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표 1>참조). 13개 위해요인은 식품함유 중금속(수은, 납 등), 식품잔류 화학물질, 방사능 오염식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식품첨가물, 채소나 과일의 잔류농약, 유전자 변형식품(GMO), 음주, 비만, 식품알레르기, 식중독이다. 영역별로는 가축 및 농장관련 영역에 7개 요인으로 가장 많은 위해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먹거리에 위해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 요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품 알레르

〈표 1〉 먹거리 위해요인의 구성

관련영역	바이오테크놀로지	가축 및 농장 관련	라이프스타일	미생물
위해요인	GMO, 식품첨가물, 가공식품, 방사능오염, 식품함유 중금속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잔류농약, 항생제, 살충제, 성장호르몬	비만, 음주, 흡연	식중독, 식품알레르기

기도 대중적 인식이 높은 위해요인으로 간주하여 포함하였다. 불안 수준은 “평소 아래 위해요인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을까 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가”의 문항을 각 문항마다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2) 먹거리 관심과 구매 행위

먹거리 관련 행위로서 먹거리 관심은 친구와 먹거리 관련 대화, 미디어를 통한 정보 추구, 식품 원산지에 대한 관심의 3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성찰적 구매 행위는 먹거리 구입 시 상품정보의 확인,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추구, 상품 질에 대한 중시, 건강에 대한 중시의 4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각 항목은 모두 5점 척도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표 2〉 먹거리 관심과 구매행위 조사 항목

먹거리 관심	먹거리 구매 행위: 성찰성
항목1) 나는 친구들과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한다.	항목1) 식품구입 시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항목2) 나는 신문 잡지 TV 등에서 요리관련 기사가 있으면 즐겨 본다.	항목2) 식품구입 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주인이나 직원의 조언을 참고한다.
항목3) 나는 식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고 노력한다.	항목3) 식품구입 시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항목4) 식품구입 시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가장 중시한다.

3) 사회 계층 및 인구학적 요인

먼저 소득 수준은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상, 중, 하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의 하층, 고졸의 중층, 대학 이상 상층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은 여성 역할에 주목하여 남성, 주부 여성, 비주부 여성의 3개 집단으로, 연령 집단은 19세~35세, 36세~55세, 56세 이상의 3집단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거주규모별 거주 지역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표본 특성

경험적 분석 자료는 2011년 7월 21일부터 8월27일에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대인 면접한 결과이다. 조사 모집단은 2010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근거하였으며 다단계 층화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16개 광역시도별로 성과 연령의 비율에 따라 표본 수를 비례 배분한 후, 시도별로 26개 층으로 층화하였으며 층별로 3~16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총 154개 조사 지점에서 최종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에서 읍면 지역을 포함하였으며(전체 표본의 15.0%), 연령별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하여(60세 이상 20.1%) 전국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³⁾

3)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성별: 남성 49.1% 여성 50.9% 2) 연령: 19~29세 19.7%, 30대 21.0%, 40대 22.4%, 50대 17.5%, 60세 이상 19.5% 3) 혼인상태: 미혼 29.2%, 기혼 65.7%, 이혼 및 사별 5.2% 4) 월 소득별: 100만 원 미만 9.2%, 100만~200만 원 미만 17.5%, 200~400만 원 미만 44.5%, 400~600만 원 미만 22.8%, 600만 원 이상 6.3% 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5.8%, 고졸 29.0%, 대재 대졸 50.6%, 대학원

IV. 분석

1. 먹거리 위해요인에 대한 불안

먼저 먹거리 위해요인별로 불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자. 식품함유 중금속(수은, 납 등), 식품잔류 화학물질, 방사능 오염식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식품첨가물, 채소나 과일의 잔류농약, 유전자 변형식품(GMO), 음주, 비만, 식품알레르기, 식중독의 13개의 위해요인에 따른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위해요인에 대한 불안 정도를 정리한 결과가 <표 3>이다.

<표 3> 먹거리 위해요인별 불안 분포

위해요인	구분				평균 (5점척도)	표준 편차
	불안하지 않음	보통	불안함	계(%)		
비만	39.0	27.6	33.5	100.0	2.89	1.09
음주	54.8	26.3	19.0	100.0	2.46	1.08
식품알레르기	47.7	34.7	17.6	100.0	2.59	0.99
식중독	37.6	44.2	18.3	100.0	2.75	0.90
유전자 변형식품	29.0	43.1	28.0	100.0	2.97	0.93
식품첨가물	25.7	40.2	34.1	100.0	3.07	0.95
잔류농약	25.9	38.8	35.3	100.0	3.09	0.95
식품잔류 화학물질	25.3	39.0	35.7	100.0	3.11	0.98
식품함유 중금속	27.8	34.8	37.5	100.0	3.10	1.00
방사능 오염식품	29.6	35.2	35.2	100.0	3.07	1.05
구제역	28.1	40.1	31.8	100.0	3.03	0.97
조류독감	28.5	41.7	30.8	100.0	3.00	0.96
광우병	28.9	39.6	31.5	100.0	3.02	1.00

주: 강조는 저자.

이상 4.5% 6) 거주 지역별: 대도시 49.4%, 중소도시 35.6%, 읍면지역 15.0%

〈표 4〉 13개 먹거리 위해요인별 불안의 요인분석

위해요인	요인1(기술관련 위해요인)	요인2(생활습관 위해요인)
식품함유 중금속(수은, 납 등)	0.865	0.202
식품잔류 화학물질	0.862	0.197
방사능 오염식품	0.834	0.186
광우병	0.827	0.180
조류독감	0.826	0.221
구제역	0.825	0.222
식품첨가물	0.816	0.245
채소나 과일의 잔류농약	0.806	0.238
유전자 변형식품(GMO)	0.777	0.321
음주	0.096	0.795
비만	0.139	0.753
식품알레르기	0.340	0.721
식중독(살모넬라균 등)	0.547	0.590

주: 수치는 요인부하량이며, 강조는 저자.

결과를 살펴보면, 식품 잔류화학물질, 식품 함유 중금속, 잔류농약, 식품 첨가물, 방사능 오염식품 등의 순으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음주,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불안 수준은 낮다. 구제역, 조류독감 및 광우병 등 동물전염염병에 대한 불안은 중간 수준이다. 즉 직접 섭취하는 식품 오염에 대해서 우려가 가장 높으며 비만, 음주와 같이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과 관련된 위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불안해한다.

13개 위해요인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시행한 결과가 <표 4>이다. 요인분석 결과, 13개 건강 위해요인은 2개의 차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요인1에는 식품함유 중금속(수은, 납 등), 식품잔류 화학물질, 방사능 오염식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식품첨가물, 채소나

〈표 5〉 인구학적 요인 및 사회 계층 요인별 불안 수준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	
		점수	F 검증	점수	F 검증
성별	남	3.40*		2.69	
	여성_비주부	3.68	8.561	2.88	12.100
	여성_주부	3.56	.000**	2.57	.000**
연령별	19~35세	3.51		2.81	
	36세~55세	3.53	1.746	2.68	14.492
	56세 이상	3.42	.175	2.48	.00**
소득별	하	3.39		2.50	
	중	3.52	1.971	2.69	7.675
	상	3.53	.140	2.74	.00**
교육수준별	중학 이하	3.31		2.32	
	고교	3.61	6.76	2.70	28.35
	대학	3.50	.001**	2.75	.000**
지역별	읍면지역	3.38		2.48	
	중소도시	3.44	4.98	2.61	14.69
	대도시	3.58	.007**	2.77	.000**

** : $p < .01$, * : $p < .05$

주 : 5점 척도임. 수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음.

과일의 잔류농약이, 요인2에는 음주, 비만, 식품알레르기, 식중독이 각각 높은 부하량 값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1은 식품 오염이나 동물 전염병과 같은 위해요인으로 주로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요인들인데 비해서 요인2는 음주, 비만과 같이 주로 식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요인들을 알 수 있다.⁴⁾ 요인1은 “기술관련 위해요인에 의한 불안”으로 요인2는

- 4) 요인2로 분류한 위해요인 중 식중독은 요인2의 요인부하량 값(0.590)이 요인1의 부하량 값(0.547)과 차이가 크지 않고,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그러나 습관적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판단되어 생활습관 위해요인으로

“생활습관 위해요인에 의한 불안”으로 각각 명명하기로 한다.

이제 두 가지 먹거리 불안 위해요인을 대상으로 먹거리 불안의 사회적 분화 양상을 집단별 단순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표 5>참조).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 소득과 교육수준의 사회계층적 요인, 그리고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불안의 정도를 각각 비교해 보자. 먼저 기술관련 요인에 의한 불안에서는 교육수준, 성별 및 거주지역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교육수준별 차이로는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고졸과 대학 재학이상 집단의 불안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주부와 비 주부 여성의 불안 수준은 비슷하며 거주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불안 수준이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거주자에 비해서 높다. 반면 연령이나 소득 계층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생활습관 요인에 따른 불안 수준은 성과 연령을 비롯하여 소득 계층과 교육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앞서 기술관련 불안에 비해서 불안 격차가 다양한 집단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집단 간 변이 또한 크다.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보다는 주부가 아닌 여성이 주부에 비해서 불안수준이 높아 기술관련 불안의 성별 격차와 양상이 다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불안수준이 증가하는 경향도 기술요인 불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양상이다. 사회 계층요인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큰 것은 기술관련 불안과 다르지 않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득이 하층에서 상층에 이를수록 생활습관 위해요인에 대한 불안이 점증한다.

앞서 설명한 사회적 요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불안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로 한다(<표 6>참조). 분석 모델은 각 불안 유형별로 위계적 모델을 설정하였는데 <모델1>(생활습관 위해 불안)과 <모델3>(기술관련 위해 불안)은 성(gender)과 연령 그리고 소득 요인만을 독립 변수로 투입한 것이며 <모델2>(생활습관 위해 불안)와 <모델4>(기술관련 위해 불안)는 <모델1>과 <모델3>에 투입한 독립 변수에 각각 교육수준과 지역 규모 요인을 부가하였다. 모델을 위계적으로 구성한 이유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회 계층 요인인 소득과 인구학적 요인이 불안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를 확인한 후에, 불안 수준에 독립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수준을 동시에 투입하여 투입 이전과 이후에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다.

먼저 생활 습관 위해요인 불안에 관한 회귀분석 분석 결과를 설명해 보면, <모델1>의 투입변수 가운데 소득에 따른 불안 격차가 발견되고 있는데 중층 소득 계층과 상층 소득 계층 모두 하층에 비해서 불안 수준이 높다. 상대적으로 중층과 상층의 불안 격차는 크지 않다. 그런데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을 동시에 투입한 <모델2>에서 소득의 설명력은 크게 약화되는 대신(β 값 변화: 소득 중층 .081→.011, 소득 상층 .096→.020) 교육수준의 설명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과 마찬가지로 중층과 상층 간 차이는 거의 없는데 비해서 각각 하층과의 격차가 유의미하다(β 값: 교육수준 고졸 .188, 교육수준 대졸 .199). <모델2>에서 경제적 계층의 효과가 크게 약화된 대신 교육수준의 효과가 결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소득 변수의 “허구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물론 소득과 교육수준의 논리적 연관성에 주목할 때 계층적 요인이 교육수준을 매개로 불안 격차를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두 계층 요인 가운데 교육수준의 독립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소득 계층만을 고려했을 때 계층별 불안 격차를 관찰할 수 있지만

〈표 6〉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과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				(기술관련 위해요인에 의한 불안)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	β	b	β	b	β	b	β
여성_비주부	.137*	.061	.117	.052	.292**	.104	.280**	.100
여성_주부	-.080	-.049	-.49	-.030	.178**	.088	.187**	.093
연령_36~55세	-.075	-.048	-.064	-.041	.049	.025	-.041	-.021
연령_56세 이상	-.200**	-.109	-.048	-.026	-.029	-.013	-.043	-.019
소득_중	.127*	.081	.017	.011	.129*	.066	.049	.025
소득_상	.165*	.096	.034	.020	.126	.059	.049	.023
교육수준_고졸			.324**	.188**			.274**	.128**
교육수준_대학			.313**	.199**			.167	.086
지역규모_중소도시			.042	.026			.016	.026
지역규모_대도시			.186**	.119			.142**	.119
상수	2,647**		2,320**		3,272**		3,074**	
수정 R ²	.050**		.082**		.035**		.061**	

** : $p < .01$, * : $p < .05$

이는 주로 계층별 교육수준의 격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술관련 위해요인에 의한 불안의 사회적 분화 양상을 설명해보자.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과 동일한 분석 모델을 적용한 결과가 <표 6>의 오른 편이다. 먼저 모델의 전체 설명력을 살펴보면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모델 전체 수정 R²: 기술관련 위해요인=.036, 생활 습관 위해요인=.056).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은 위해 원인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자원을 동원하여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전반적 불안 수준은 높지만 집단 간 불안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계층 요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설명하면, <모델3>

에서 소득 계층은 중층 이상과 하층과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모델4>에서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는 교육의 독립적 효과가 드러난 대신(β 값: 교육수준 고졸 .128) 소득 효과는 약화되고 있어(β 값 변화: 소득 중층 .066→.025) 앞서 분석한 생활습관 위해 요인 불안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단, 교육수준별 차이가 상층보다 중층과 하층사이에서 유의미하며 설명력이 다소 약화된 점이 다르다.

불안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두 불안 유형 모두에서 소득에 비해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불안과 교육적 지위의 관련성에 관한 몇 가지 설명을 적용해 보자. 먼저 객관적 위협의 존재를 상징하는 객관주의적 입장에 따르면(Renn, 1992), 교육수준은 객관적 위협을 파악하는 합리적인 지식 수준과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객관적으로 높은 위험 수준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객관적인 위험 수준에 상응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진 반면, 낮은 교육수준 집단에서 객관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서 위험이 자신을 피해갈 것이라고 믿는 일종의 비합리적 “위험낙관주의”(Weinstein, 1980)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⁵⁾ 객관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층에서 위험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른 불안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기술관련 위해요인에 비해서 생활습관 위해요인에 대해서 더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5) 물론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위협에 대응하여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층 계층이 더 낙관적인 경우도 있지만, 지식 부족이나 결함과 같은 인지적 문제로 하층 계층에서 “낙관주의적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Weinstein · Klein, 1996). 상층에서 높은 불안을 보여준 앞서 분석 결과는 후자 상황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수준이 단순히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지식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관련 위해보다 생활습관 위해를 신체나 건강과 관련하여 공유하고 있는 생활양식의 위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 양식을 공유하는 교육수준에서 집단별 불안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 생활습관 위해요인에 대한 불안은 소극적 두려움보다 생활습관적 위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불안으로 이해된다. 전자의 해석이 인식 능력과 관련한 사회심리학적 기제를 근거로 하는 개인주의적 해석이라면, 후자의 문화주의적 해석은 집단이 공유하는 맥락과 규칙을 전제한다. 개인주의적 설명은 위험 일반에 대한 교육수준별 불안 격차를 설명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지만, 위해요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집단마다 대응 방식의 차이를 밝혀주지 못한다. 불안 유형에 따라서 교육수준별 불안 인식이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불안 인식이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구성되는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자. 먼저 생활습관 위해요인에 의한 불안 분석 결과를 보면, <모델1>의 분석에서 성과 연령의 일부 집단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서 주부가 아닌 여성에서 불안 수준이 다소 높은 반면($\beta=.061$), 56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불안 수준이 낮다($\beta=-.109$). 특히 고연령층의 낮은 불안 수준은 위험인식에서 흔히 관찰되는 위험무관심이나 위험낙관주의 경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명 모델의 설명력은 교육수준과 지역규모 변수를 투입한 <모델2>에서 약화되고 있어(β 값 변화: 여성 비주부 .061 \rightarrow .052, 56세 이상 -.109 \rightarrow -.026)) <모델1>에서 발견된 성과 연령 효과는 주로 교육수준과 지역 특성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관련 위해 불안요인 분석 결과는 생활 습관 위해요인 분석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모델3>에서 불안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주는 요인은 성으로 주부 여성과 비 주부 여성 모두 남성에 비해서 불안 수준이 높다. 뿐만 아니라 소득, 교육수준 및 지역 규모를 통제한 <모델4>에서도 성별 불안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β 값 변화: 여성 비주부 .104→.100, 주부여성 .088→.093) 성별 효과가 통제 이후 약화된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의 결과와 다르다. 즉 성이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에서는 교육수준 못지않은 독립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생활습관 위해 불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성별 불안 격차가 기술관련 위해 불안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은 상대적으로 지식수준의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일단 성별 불안 격차는 지식수준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정확하지 않은 지식으로 더 불안해 한다는 소위 “지식 결핍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 여성이 감정적으로 훨씬 민감하다는 가설은 상대적으로 감정적 반응이 민감할 것으로 예견되는 젊은 여성 비주부층에서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여성 주부의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의 높은 수준은 단순한 여성성의 맥락보다는 가정에서 수행하는 자녀와 가족에 대한 양육 책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2. 먹거리 관심

먹거리 관심의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친구들과 먹거리에 대한 대화정도,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정도나 먹거리 관련 소식에 대한 관심, 식품 원산지에

〈표 7〉 먹거리 관심의 항목별 분포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그렇지 않다	반반	그렇다	계(%)		
나는 친구들과 먹거리에 대한 이야 기를 즐겨한다.	25.5	41.8	30.3	100.0	3.07	.86
나는 신문 잡지 TV 등에서 요리관 련 기사가 있으면 즐겨한다.	24.8	37.8	33.4	100.0	3.12	.93
나는 식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려고 노력한다.	18.0	35.2	46.8	100.0	3.33	.91

대한 지식추구의 3개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관심 수준은 중간 수준 보다 약간 높으며, 세 개 항목 중 식품 원산지에 대한 관심 수준이 가장 높다(〈표 7〉참조).

먹거리 관심에 대한 불안 수준과 사회 집단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7개 회귀분석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모델1>은 불안 수준을 제외한 모든 사회집단 요인을 투입한 모델이며 <모델2>, <모델3>, <모델4>는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을, <모델5>, <모델6>, <모델7>은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을 각각 투입한 모델이다.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과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별로 각각 모델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불안 유형별로 집단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이다.⁶⁾ <모델2>와 <모델5>는 독립변수로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과 불안 수준을 투입한 모형이며, <모델3>과 <모델6>은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 불안 수준에 소득 수준을 첨가하였으며 <모델4>와 <모델7>은 성과 연령의 인구학적 요인, 불안수준,

6) 특히 관련된 기존의 경험적 발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모델 설정은 엄격한 검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변수의 특정 효과를 정밀 관찰하기 위한 탐색적 의의를 지닌다.

소득 및 교육수준의 계층 요인 그리고 지역규모를 투입한 모델이다.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 모델의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자. 먼저 성, 연령, 불안수준을 투입한 <모델2>의 분석결과를 알아보면, 성, 연령, 불안수준 모두 먹거리 관심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성별 영향력이 가장 큰 데 전체 여성의 먹거리 관심이 남성보다 높으며, 특히 주부의 먹거리 관심이 가장 높다. 불안 수준도 먹거리 관심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먹거리 관심이 증가한다. 연령 집단별로는 36~55세 연령층의 먹거리 관심이 가장 높아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먹거리 관심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2>에 투입한 변수에 소득 수준을 부가한 <모델3>에서도 역시 모든 독립 변수가 먹거리 관심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준다. 소득 수준에서는 하층, 중층, 상층의 서열별로 관심이 증가하는 양상이며, <모델2>에서 발견된 인구학적 요인들과 불안 수준 효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소득 계층 수준과는 관계없이 성과 연령 그리고 불안 수준은 먹거리 관심에 일정한 독립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소득, 교육수준 및 지역규모를 동시에 투입한 <모델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교육수준과 지역 규모를 투입한 <모델4>의 결과는 앞서 분석 결과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하나는 소득과 교육수준의 독립적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 교육수준 통제 이후에 소득 효과는 상층에서만 유의미 하며, 교육수준도 대학 이상의 상층에서만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여준다. 즉 모든 사회 집단 요인과 불안 수준이 일정할 때 순수한 계급 격차는 상층 계층과 하층 사이에 존재한다. 또한 <모델2>와 <모델3>에서 발견된 성과 연령 집단 그리고 불안 수준의 효과는 <모델4>에서 거의 변화가 없지만, <모델2>와 <모델3>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일부 연령 집단별 차이가 새로

〈표 8〉 먹거리 관심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사회경제적 요인만 투입)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 투입)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 투입)		
모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모델7	모델8	모델9	모델10
회귀계수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성별_여성 비주부	.259** (.125)	.223** (.108)	.242** (.113)	.235** (.113)	.198** (.096)	.217** (.106)	.208** (.110)			
성별_여성주부	.370** (.248)	.351** (.235)	.358** (.255)	.380** (.255)	.300** (.201)	.309** (.207)	.336** (.226)			
연령별_36~55세	.111** (.077)	.127** (.088)	.109** (.086)	.124** (.086)	.102* (.071)	.084** (.058)	.103* (.072)			
연령별_56세 이상	.130** (.077)	-.007 (-.004)	.049 (.029)	.140* (.083)	-.048 (-.029)	.012 (.007)	.122* (.073)			
불안수준_생활 습관		.220** (.239)	.214** (.224)	.206** (.224)						
불안수준_기술					.186** (.250)	.182** (.246)	.180** (.242)			
소득_중	.099 (.069)		.147* (.052)	.096 (.066)		.150* (.106)	.091 (.063)			
소득_상	.174** (.110)		.240** (.152)	.167** (.106)		.253** (.160)	.165** (.105)			
교육수준_고교	.171* (.108)			.105 (.066)			.122 (.077)			
교육수준_대학 이상	.232** (.160)			.167* (.116)			.202* (.140)			
지역규모_중소도시	.132* (.088)			.123* (.082)			.129* (.086)			
지역규모_대도시	.150** (.104)			.111* (.078)			.125* (.087)			
상수	2,516**	2,368**	2,25**	2,038**	2,349**	2,057**	1,954**			
수정 R ²	.089**	.117**	.130**	.130**	.115**	.121**	.132**			

** : p<.01, *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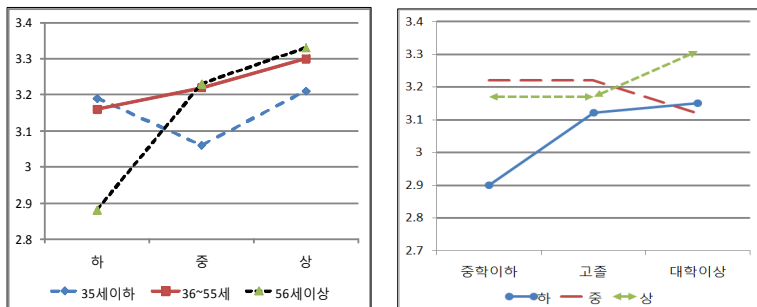
드러나고 있다. 즉 56세 이상 인구집단에서 소득과 교육수준 통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먹거리 관심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56세 이상 β 값 : -.007 → .140) 계층 내부에서 56세 이상 고령층과 다른 연령층 간에 관심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불안 수준을 배제한 <모델1>과 불안 수준을 포함한 <모델4>를 비교해 보자. 불안 수준과 사회적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먹거리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상호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모델1>의 집단별 영향력 계수를 <모델4>와 비교해 보면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사회집단 요인과 불안 수준이 각각 먹거리 관심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델1>과 <모델4>의 사회 집단 변수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변수는 교육수준으로 <모델4>에서 불안 수준을 통제할 이후에 교육수준의 독립적 효과는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교: .108→.066, 대학 이상: .160→.116).

마지막으로 기술관련 위해 불안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과 지금까지 설명한 생활습관 위해 불안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자. 기술관련 위해 불안을 투입한 <모델5>, <모델6>, <모델7>을 각각 생활습관 위해 불안을 투입한 <모델2>, <모델3>, <모델4>와 비교해 보면 전체 양상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단,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독립적 효과가 생활습관 위해 불안에 비해서 다소 증가하여(대학이상 β 값: .116→.140) 기술관련 위해 불안에서 교육수준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안 수준이 먹거리 관심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는 기술관련 위해 불안보다 생활습관 위해 불안에서 더 높다. 먹거리 불안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습관 위해요인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앞서 생활 습관 위해 불안에서 발견된 소득, 연령, 교육수준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먹거리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보자. 이를 위해서 연령과 소득 그리고 소득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 양상을 기술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연령집단별로 소득에 따른 먹거리 관심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1〉 소득에 따른 연령별 먹거리 관심 〈그림 2〉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별 먹거리 관심



<그림 1>이다. 그림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하나는 세 개 연령집단 가운데 36세 이상 연령층에서 소득수준별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56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소득 간 먹거리 관심 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각 소득 집단 내부에서 연령별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상층과 중층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하층에서는 56세 이상의 먹거리 관심 수준이 55세 이하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다. 즉 타 연령층과 비교할 때 56세 이상에서 소득 수준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소득과 연령의 결합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교육 상층과 소득 상층의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과 소득 수준 양자의 결합 효과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교육과 소득의 결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 수준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먹거리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소득 계층별 교육수준의 효과는 차별적이다. 소득 중층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관심도 차이가 거의 없는데 비해서, 소득 상층은 대학 이상에서 증가하며, 소득 하층은 고졸 이상에서 차이가 없지만 중학 이하에서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층이고 대학

이상 집단 그리고 소득 하층이고 중학 이하인 두 집단의 관심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소득과 교육의 결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먹거리 관심에 대한 여러 분석 결과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두 가지 먹거리 불안, 인구학적 요인과 계층 요인은 각각 먹거리 관심에 독립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요인에 따라서 먹거리 관심이 유발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불안에 대한 직접 대응 양식으로 먹거리 관심이 증대되는 두 가지 구분되는 인과적 경로를 보여 준다. 둘째, 사회 계층 요인의 영향력에서, 소득과 교육수준이 먹거리 관심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과 교육수준 모두에서 상층과 하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양극화 양상이 관찰된다. 나이가 소득과 교육이 결합된 “총합 지표”(composite index)로서 사회 계층에서 먹거리 관심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주부의 먹거리 관심이 특히 높아 가족에서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연령별로는 56세 이상 고령 인구 집단 내부에서 증대되는 소득 효과가 특히 주목된다.

먹거리 관심은 먹거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과 선호의 차원을 넘어서 먹는 행동의 선행 요인이며 적극적 의미로는 먹거리 불안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 행동의 기반이라고 볼 때, 사회 계층과 일부 연령층에서 발견된 먹거리 관심 격차는 먹거리 관련 행동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와 먹거리의 질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성찰적 소비 행위

먼저, 성찰적 소비의 4개 항목별 분포를 보면, 모두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크게 높아 먹거리 소비행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찰성이 유지되고

〈표 9〉 성찰적 소비의 항목과 분포

항목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아니다	반반	그렇다	계(%)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	14.7	37.8	47.5	100.0	3.36	.82
전문적 지식이 있는 주인이나 직원 조언을 참고	22.4	45.7	31.7	100.0	3.07	.83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	10.5	39.0	50.5	100.0	3.45	.79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가장 중시	10.7	43.8	45.5	100.0	3.40	.80

있다. 항목별로는 전문가에 대한 지식 조언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한다는 질을 강조하는 행위에 그렇다는 동의 의견이 가장 많다.

성찰적 소비의 사회 집단별 분화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성찰적 소비가 불안 수준과 먹거리 관심과 맺는 단순 상관성을 확인해 보자. 성찰적 소비와 먹거리 관심의 상관성은 매우 높지만($r=.555$), 두 가지 불안 수준은 성찰적 소비와 약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성찰적 소비의 사회적 분화를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모델은 앞서 먹거리 관심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단, <모델2>에

〈표 10〉 불안 수준, 먹거리 관심과 성찰적 소비 수준과의 단순상관계수

	생활습관 위해 불안	기술관련 위해 불안	먹거리 관심
성찰적 소비	.140**	.189**	.555**

** : $p < .01$

서 <모델7>에 이르는 모델들에 먹거리 불안 이외에 먹거리 관심 변수를 첨가하였다.

먼저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을 투입한 <모델2>, <모델3>, <모델4>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참조). 성별 지위, 연령 그리고 불안 수준과 먹거리 관심을 투입한 <모델2>에서 여성 주부와 연령집단, 먹거리 관심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먹거리 관심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β 값: .525) 여성 주부의 성찰적 소비 수준이 남성과 여성 비주부에 비해서 높다(여성 주부 β 값: .136).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찰적 소비 수준이 감소한다. 또한 단순 상관분석에서 발견되었던 불안 수준이 성찰적 소비에 미치는 약한 효과는 거의 소멸되고 있다.

<모델3>에서 계층 변수 중 소득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중층과 상층 모두 하층과 차이가 없으며 소득 변수 투입 이후에도 기존 변수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소득에 따른 성찰적 소비성향 차이는 없으며 다른 독립 변수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모델3>에 투입된 변수에 교육수준과 지역 규모를 첨가하여 모든 독립 변수를 투입한 <모델4>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 교육 상층이 하층에 비해서 높은 성찰적 소비 수준을 보여주지만(상층 β 값: .104), 중층은 하층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교육수준을 투입하기 이전의 <모델3>과 비교해보면 <모델3>에서의 주부 집단 효과는 <모델4>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어 계층적 배경과 관계없이 주부는 남성보다 높은 성찰적 소비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모델4>의 분석 결과를 사회집단 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델1>의 결과와 비교하면, 일부 차이가 발견된다. 먹거리 관심을 통제한 후에 교육의 독립적 영향력이 두 집단 모두에서 약화되고 있으며(β 값 변화: 고졸 .115→.057, 대학 이상 .190→.104), 여성 비주부의 영향력도 크게 약화되어 통계적 유의미

〈표 11〉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 계층적 요인의 성찰적 소비에 대한 회귀분석

	(사회경제적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 요인만 투입) 투입 모델)			(기술 위해요인 불안 투입 모델)			
모델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모델7
회귀계수	b(β)	b(β)	b(β)	b(β)	b(β)	b(β)	b(β)
성별_여성비주부	.216** (.111)	.094 (.048)	.095* (.049)	.089 (.046)	.090 (.047)	.091* (.047)	.085 (.044)
성별_여성주부	.390** (.279)	.190** (.136)	.192** (.138)	.210** (.151)	.186** (.134)	.188** (.135)	.207** (.149)
연령별_36~55세	-.047 (-.034)	-.102** (-.075)	-.112** (-.083)	-.100 (-.074)	-.104** (-.077)	-.114** (-.034)	-.101** (-.075)
연령별_56세 이상	-.005 (-.003)	-.141** (-.089)	-.138** (-.088)	-.068 (-.043)	-.143** (-.091)	-.141** (-.089)	-.069 (-.044)
불안수준_생활습관		.015 (.018)	.015 (.017)	.007 (.012)			
불안수준_기술					.024 (.035)	.025 (.036)	.024 (.035)
먹거리 관심		.492** (.525)	.489** (.522)	.481** (.520)	.487** (.521)	.484** (.517)	.481** (.514)
소득_중	-.007 (-.005)		-.030 (-.022)	-.056 (-.041)		-.030 (-.022)	-.056 (-.042)
소득_상	.099 (.067)		.052 (.037)	.014 (.009)		.055 (.037)	.014 (.010)
교육수준_고교	.171* (.115)			.084 (.057)			.082 (.055)
교육수준_대학 이상	.257** (.190)			.141* (.104)			.142** (.105)
지역규모_중소도시	.021 (.015)			-.044 (-.031)			-.043 (-.031)
지역규모_대도시	.077 (.057)			.002 (.002)			-.002 (.001)
상수	2.865	1.675**	1.688	1.610**	1.648**	1.659**	1.582
수정 R ²	.077	.325**	.327**	.329**	.326**	.328**	.329**

** : p<.01, * : p<.05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여성 비주부의 β 값 변화: .111→.046). 즉 고졸 집단과 여성 비주부의 성찰적 소비 성향이 중졸과 남성보다 각각 높게 나타난 것은

먹거리 관심이 높아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 주부와 대학 이상 집단은 먹거리 관심 수준과 관계없이 남성과 중학 이하 집단에 비해서 각각 높은 성찰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성, 연령, 계층의 사회집단 중에서 성찰적 소비에 가장 강한 독립적 효과를 보여주는 하위 집단은 여성 주부와 대학 이상 집단이다. 한편, 기술 위해요인 불안의 분석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생활습관 위해요인 불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불안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불안이 성찰적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먹거리 관심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상의 성찰적 소비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계층 요인과 관련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성찰적 소비 행위 분화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교육수준별로 대학 이상의 집단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양상은 계층 요인에 따라 다양한 분화 양상을 보여준 먹거리 관심의 결과와 비교된다. 인구학적 요인 중에는 여성 주부 효과가 두드러져 가족 내 역할이 성찰적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성찰적 소비 수준이 감소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둘째, 성찰적 소비에 먹거리 관심이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지만, 불안의 독립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먹거리 불안 수준이 먹거리 관심을 매개로 성찰적 소비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 수준이 높다하더라도 먹거리 관심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찰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양상은 먹거리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공통적이다.

4. 먹거리 소비 양식 유형

지금까지 분석한 먹거리 불안, 먹거리 관심, 성찰적 소비의 3개 영역을

〈표 12〉 먹거리 소비 유형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생활습관 불안	수준	높음	중간	매우 높음	매우 낮음	중간
	평균(전체:2.67)	(3.16)	(2.30)	(3.39)	(1.89)	(2.51)
관심	수준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평균(전체:3.17)	(4.04)	(3.71)	(3.28)	(2.88)	(2.17)
성찰적 소비	수준	매우 높음	약간 높음	중간	중간	매우 낮음
	평균(전체:3.28)	(4.40)	(3.52)	(3.30)	(3.15)	(2.45)
사례수		144	301	438	297	250
(비율)		(10.1)	(21.0)	(30.6)	(20.8)	(17.5)
유형		적극 관심 성찰형	불안 적극 대응형	관습형	불안 무관심형	불안 회피형

기준으로 먹거리 소비 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가 <표 12>이다. 여기서 불안은 생활습관 위해 불안을 가리킨다. 생활습관 위해 불안을 분석 대상으로 한 이유는 지금까지 분석에서 기술관련 위해요인 불안에 비해서 사회 집단 간 변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군집 양상을 보다 잘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집 분석 결과,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각 군집의 특성을 설명해 보자. 먼저 <군집1>은 불안 수준이 높고 먹거리 관심이나 성찰적 소비 수준이 특히 높은 유형이다. 전체의 약 10%정도가 여기 해당한다. 불안 수준이 높지만 이에 비해서 특히 관심과 성찰적 소비 성향이 월등히 높아 “적극 관심성찰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군집2>는 불안 수준은 중간 정도이지만 관심 수준이 높고 성찰적 소비 수준도 중간을 다소 상회한다. 이 유형은 불안 수준에 비해서 관심과 성찰적 소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불안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는 “불안 적극대응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군집3>은 불안

수준은 매우 높지만 관심이나 성찰적 소비 수준은 보통 정도인 유형으로 전체의 30%정도로 가장 비율이 높다. 불안 수준이 높지만 이에 대응하는 관심과 성찰성 정도는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관습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군집4>는 불안 수준은 매우 낮지만 관심이나 성찰적 소비 수준은 보통 혹은 약간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 수준이 예외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먹거리 “불안무관심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군집 5>는 불안 수준이 중간 정도이지만 관심과 소비 성찰성은 매우 낮은 유형이다 (전체의 17.5%). 먹거리 불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지 않지만 먹거리 관심이나 소비 성찰성이 낮아, 불안을 인식하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불안회피형”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먹거리 소비 유형이 사회 계층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소득과 교육수준의 계층별 분석 결과가 <표 13>이다. 먼저 소득별 분포의 상대적 차이를 살펴보면, 소득 하층에서 무관심형이 많고(30.5%) 상층에서 적극 관심성찰형 비율이 약간 높은 반면 (12.0%) 불안회피형은 다소 적다. 소득 계층별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하층에서 높은 무관심형과 중층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습형이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하층에서 관습형이 적은 반면(19.0%) 무관심형이 상대적으로 많고(35.0%). 중층과 상층간 차이가 크지 않아 소득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단 교육 하층에서 적극 관심성찰형 비율이 크게 감소한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소득과 교육수준의 사회 계층 분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상층에서 적극 관심성찰형이 많고, 하층에서 무관심형이 많으며, 계층별 유형 격차는 주로 하층과 중층 이상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사회 계층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소비 유형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계층별 차이가 드러난 관습형과 무관심형은 불안과 관심의 문화적

〈표 13〉 소득 및 교육수준별 먹거리 소비 유형 분포

	소득			교육수준			계
	하	중	상	하	중	상	
적극 관심성찰형	8.2	9.6	12.0	2.2	10.4	12.2	10.1
불안 적극대응형	18.8	21.4	21.9	22.6	23.4	19.4	21.0
관습형	22.7	31.9	33.2	19.0	29.9	34.3	30.6
불안 무관심형	30.5	17.5	20.7	35.0	19.3	17.5	20.8
불안 회피형	19.9	19.5	12.3	21.2	17.1	15.5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적 검증	$\chi^2=34.585^{**}$			$\chi^2=61.885^{**}$			

** : $p < .01$, * : $p < .05$

맥락이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계층 간 차이를 경제적 격차에서 기인하는 기회불평등으로만 수렴하는 설명은 한계가 있다. 먹거리 위험을 둔감하게 여기고 먹거리 무관심을 야기하는 인자(因子)가 사회문화적 차원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먹거리 위험에 대한 자기중심의 낙관주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먹거리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먹기 행위를 단지 생존과 활동의 도구적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습속이나 규칙이 생활양식의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성과 연령 집단에 따른 유형을 비교해 보자(<표 14>참조). 먼저 성별 지위를 살펴보면 유형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남성은 다른 성별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 관심성찰형이 적은 반면에(7.4%), 불안회피형이 많다(24.9%). 한편 주부가 아닌 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 관심성찰형이 많고 무관심형 비율이 매우 적으며(15.5%), 특히 주부인 여성에서 불안 적극대응형이 매우 많고(32.0%), 불안 회피형은 8.1%로 남성의

〈표 14〉 성별 지위 및 연령집단별 먹거리 소비 유형 분포

	성별 지위			연령			계
	남성	여성 비주부	여성 주부	35세 이하	35세~ 55세	56세 이상	
적극 관심성찰형	7.4	17.5	10.8	13.2	11.1	4.1	10.1
불안 적극대응형	14.1	16.5	32.0	15.9	23.6	23.0	21.0
관습형	31.9	34.5	27.5	33.3	30.8	26.8	30.6
불안 무관심형	21.7	15.5	21.6	17.9	19.1	27.7	20.8
불안 회피형	24.9	16.0	8.1	19.7	15.5	18.4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적 검증	$\chi^2=119.411^{**}$			$\chi^2=41.677^{**}$			

** : $p<.01$

1/3, 여성 비주부의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가장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56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적극 관심성찰형이 적은 반면(4.1%), 무관심형이 상대적으로 많다(27.7%). 반면 35세 이하 젊은 층에서 적극 관심성찰형 비율(13.2%)이 고연령층 보다 약간 높아(13.2%) 연령 집단별 소비양식 차이도 비교적 뚜렷하다.

성별 연령별 먹거리 소비 유형에서 특히 남성의 불안회피형과 여성 주부의 불안 적극대응형이 상대적으로 매우 전형적이다. 불안 수준이 낮지 않지만 관심이나 구매 행위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불안회피형이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불안 수준에 비해서 관심과 성찰적 구매 수준이 특히 높은 불안 적극대응형이 여성 주부에서 많다는 사실은 먹거리 불안으로부터 야기되는 관련 행동이 사회적 역할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해 준다.

V. 결론

이 연구는 먼저 먹거리 불안 감정에서 출발하여 먹거리 관심, 그리고 성찰적 소비의 감정과 행위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분화 양상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을 겨냥했으며, 이에 따른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사회 계층과 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먹거리 위해요인에 따른 불안은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보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화가 두드러졌으며, 중층과 상층보다 하층과 중층 이상 사이에 인식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성역할과 연령에 따라서 먹거리 불안의 집단적 체험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위해 원인에 따른 불안 유형별 격차도 적지 않았다. 불안 인식 형성에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발견들을 통해서 먹거리 불안이 위험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기보다는 적극적 대응 양식의 시발이 되는 반응임을 확인하였다.

먹거리 관심과 성찰적 소비의 두 가지 먹거리 행위에서 사회계층과 인구학적 분화의 정도는 적지 않았다. 먹거리 관심은 소득과 교육수준 모두에서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분화 양상이 보다 명백하며 소득과 교육이 결합되었을 때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성과 연령집단에서는 주부의 먹거리 관심이 특히 높아 가족 역할의 결정적 영향력과 56세 이상 고령 인구 집단 내부에서 증대되는 소득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성찰적 소비는 먹거리 관심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대학 이상 집단과 여성 주부에서 의미 있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불안은 먹거리 관심과 성찰적 소비에 각각 다른 방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안 수준은 먹거리 관심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성찰적 소비에는 먹거리 관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불안, 관심, 구매 행위의 세 영역을 준거로 한 먹거리 소비유형 분석

결과는 사회집단별로 몇몇 의미 있는 유형을 발견하였다. 하층에서 많이 관찰되는 먹거리 불안무관심형은 경제적 자원의 차등화가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산되어 독특한 먹거리 생활양식이 형성되어 있는 근거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위험 연구 및 먹거리 연구와 관련한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먹거리 위험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으로서 의의이다. 개인주의적 접근을 통한 위험 인식에 관한 심리주의적 해석 대신에 불안과 행동 양식의 차이를 사회 집단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조건과 맥락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계층, 성, 연령과 같은 특정 사회 집단의 기본요인들이 불안의 감정과 먹거리 소비 행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먹거리 불평등 토대에 대한 행위론적 접근으로서 의의가 있다. 불안과 절차적 행위를 근거로 먹기 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관련 행위의 사회적 분화 양상들은 먹거리 불평등의 행위론적 토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먹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기존 관점들이 영양 문제를 중심으로 불평등에 접근했다면, 먹거리 불안을 비롯하여 관련 먹거리 소비 행위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접근은 불평등의 지속과 유지의 기반인 행위 양식을 규명하여 먹거리 불평등의 사회적 과정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감정과 행위의 세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한 유형화 분석을 통해서 영역 간 일치와 불일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감정과 행위의 역동성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하나는 먹거리 관련 행동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절한 이론적 조망이 요구된다. 경험적 탐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안에서 먹거리 관련 행위에 이르는 일련의 인과성이 이론의 선택적 조합 대신에 통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론적 조망을 통해서 먹거리 관련 행동의 성격을 보다 명백히 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한 분석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인들이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 점도 극복되어야 한다. 분석 모델 설정과 관련하여 일반적 계층요인이나 인구학적 변수 이외에도 먹거리 소비와 관련한 설명 변수를 풍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변수의 측정 방법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깊이 있는 질적 분석과 관찰을 통해서 먹거리 행동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요구된다. 먹거리 관련 행동들이 수행되는 집단적 맥락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사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9일: 접수/ 2012년 6월 5일: 수정/ 2012년 6월 14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규동·이정윤. 2010. “주부들의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 및 정보요구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39(3): 392-439.
- 김철규.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 정치”, 『한국사회』 9(2): 123-146.
- 김철규·김선엽·이철. 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 『경제와사회』 80: 40-67.
- 김효정·김미라. 2002.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정보요구도에 관한 연구: 잔류농약, 식중독, 식품첨가물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6(4): 296-309.
- 박형신. 2010. “먹거리 불안·파동의 발생 메커니즘과 감정 동학”, 『정신문화연구』 33(2): 161-193.
- 박희제. 2009.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대중의 위험인식의 합리성 : 대중의 과학이해(PUS) 관점”, 『현상과인식』 109: 91-116.
- 앨런 비어즈워스(Beardsworth, Alan)·테레사 케일(Kcil, Teresa). 2010. 『메뉴의 사회학 : 음식과 먹기 연구로의 초대』, 박형신·정현주 역, 한울아카데미.
- 윤병선. 2008. “세계농식품체계하에서 지역먹거리운동의 의의와 과제”, 『ECO』 12(2): 89-111.
- 이해진. 2008.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제 형성”, 『경제와사회』 80: 68-108.
- 정진성·이재열·조병희·구혜란·안정옥·장덕진·고형면·장상철. 2010. 『위험사회, 위험정치』, 서울대학교출판부.
- 차용진. 2006. “위험인식 연구: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81-201.
-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2005.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 우려의 관련요인”, 『한국식품영양학회지』 34(1): 66-74.
- 피에르 부르디외(Bourdieu, Pierre). 199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역, 새물결.
- 한준·한신갑·신동엽·구자숙. 2007. “한국인의 문화적 경계와 문화적 위계구조”, 『문화와사회』 2: 29-53.
- 황윤제·연구영·한재환. 2009. 『GMO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ourdieu, Pierre.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Calnan, M. and Cant, S. 1990. "The social organization of food consumption : A comparison of middle class and working class household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10(2); 53-79.
- Debra J. Davidson and William R. Freudenburg. 1996. "Gender and Environmental Risk Concerns : A Review and Analysis of Available Research", *Environment and Behavior* 28: 302-315.
- Delormier, Treana, Katherine, L. Frohlich and Louise, Potvin. 2009. "Food and eating as social practice: understanding eating patterns as social phenomena and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1(2): 215-228.
- DiMaggio, P. and T. Mukhtar. 2004. "Arts Participation as Cultural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1982-2002: Signs of Decline?", *Poetics* 32(2): 169-194.
- Dosman, Donna M., Wiktor L. Adamowicz, and Steve E. Hruddy. 2001.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Health- and Food Safety-Related Risk Perceptions", *Risk Analysis* 21(2): 307-317.
- Frewer, L. J., Shepherd, R. and Sparks, P. 1994.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knowledge, control and risk associated with a range of food related hazards targeted at the self, other people and society", *Journal of Food Safety* 14: 19-40.
- Gaskell, George, Nick Allum, Wolfgang Wagner, Nicole Kronberger, Helge Torgersen, Juergen Hampel, and Julie Bardes. 2004. "GM food and misperception of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4(1): 185-194.
- Halkier, Bente. 2001. "Risk and food: environmental concerns and consumer pract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36(8): 801-812.
- Jackson, P. & Jonathan Everts. 2010. "Anxiety as a social practi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2: 2791-2806.
- Jackson, Peter. 2010. "Food stories: consumption in an age of anxiety", *Cultural Geographies* 17(2): 147-165.
- Miles, S., and Lynn J. Frewer. 2001. "Investigating specific concerns about different food hazard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2: 47-61.
- Miles, S., Mary Brennan, Sharron Kuznesof, Mitchell Ness, Christopher Ritson, Lynn J. Frewer. 2004. "Public worry about specific food safety issues", *British Food Journal* 106(1): 9-22.
- Knight, A. and R. Warland. 2005. "Determinants of Food Safety Risks: A

- Multi-disciplinary Approach”, *Rural Sociology* 70(2): 253-275.
- Reckwitz, Andreas. 2002. “Toward a Theory of Social Practices : A Development in Culturalist Theoriz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2): 243-263.
- Renn, O. 1992. “Concepts of risk: A classification”, in Krimsky, S. (eds.). *Social Theories of Risk*, Westport: Praeger. 53-79.
- . 2008 “Concepts of Risk: An Interdisciplinary Review-Part 1: Disciplinary Risk Concepts”, *GALA* 17(1): 50-66.
- Röpke, Inge. 2009. “Theories of practice - New inspiration for ecological economic studies on consumption”, *Ecological Economics* 68(10): 2490-2497.
-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and Sterling, VA: Earthscan.
- Verbeke, W., Lynn J. Frewer, Joachim Scholderer, Hubert F. and De Brabander. 2007. “Why consumers behave as they do with respect to food safety and risk information”, *Analytica Chimica Acta* 586: 2-7.
- Warde, Alan. 2005. “Consumption and Theories of Practice”, *Journal of Consumer Culture* 5(2): 131-153.
- Wilcocky, A, Maria Pun, Joseph Khanonax and May Aung. 2004. “Consumer attitudes, knowledge and behaviour : a review of food safety issues”,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15: 56-66.
- Wilkinson, Iain. 2001. *Anxiety in a Risk Society*, Routledge.
- Wills, Wendy, Kathryn Backett-Milburn, Mei-Li Roberts and Julia Lawton. 2011. “The Framing of social class distinctions through family food and eating practices”, *The Sociological Review* 59(4): 725-740.
- Weinstein, Neil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nstein, Neil D, William M. Klein. 1996. “Unrealistic Optimism: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1): 1-8.

Abstract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of Food Anxiety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s

Kim, Sun Up · Kim, Chul-Kyoo · Lee, Hae-Jin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tiation of food risk anxiety levels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s according to social strata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onsumers. We have analyzed how three realms of food anxiety, food concern,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s are socially differentiated.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how these three realms are related with one another.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ood anxiety increases with education level. It is especially high in group with college or higher education. We also have found that the housewives' food anxiety level is high in regard to technology-caused food hazards.

Second, food concern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position in social stratification. Compared to lower class, the middle class in terms of income and education has shown higher food concern.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upper class as a composite of income and education has much higher level of food concern.

Third, reflexive food consumption behavior is strong in two groups, i.e. the group with more than college education and the group of housewives.

Fourth, food anxiety affects food concern directly, while food anxiety affects reflexive food consumption behavior indirectly via food concern.

Fifth, we have attempted to develop a typology, which takes both food risk related perception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 into consideration. 'Food apathy

type' (very low anxiety, low food concern, and medium in reflexive food consumption), which is widely found in lower class, demonstrates that food consumption behavior is likely to be internalized within actors as cultural characteristics in everyday life.

Key Words : Food Anxiety, Food Risk, Social Stratification, Food Concerns, Food Consumption Behavior

김선업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사회연결망, 사회심리학 등이며 최근에는 먹거리 위험사회의 특성과 위험사회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관련 논문으로는 “농민시장 소비자와 배태상” “먹거리 정치의 사회학” 등이 있다. E-mail: sunup@korea.ac.kr

김철규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발전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환경과 발전, 농업사회학 등이며, 최근에는 먹거리 정치와 쇠고기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변동』, 『새로운 농촌사회학』(공저), “현대 식품체계의 동화와 먹거리 주권” 등이 있다. E-mail: ckkim@korea.ac.kr

이해진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재)한국청년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 관심과 논저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방안 연구』(공저), “로컬푸드와 지역운동 네트워크의 발전”, “먹거리 위험사회의 구조와 동화에 관한 이론화” 등이 있다.

E-mail: seafool@hanmail.net